"2009년부턴 외국품종 로열티 물어야"

딸기 국산 신품종 재배 확산

담양 등 2년새 '설향' 재배 20%로 늘어

2010년엔 연간 30억 로열티 경감효과

전남지역 딸기 재배농가들이 오는 2009년부터 시행되는 딸기 품종보호제 도입을 앞두고 로열티 부담을 우려, 국내에서 육성한 신품종으로 전환하고 있다.

국내 딸기 시장은 '장희'(아끼히메)와 '육보'(레드펄) 등 일본 품종이 대다수를 차지해 왔으나 최근 전체 재배 면적의 20%가량이 국내에서 육성한 '설향'(雪香)으로 바뀌는 등 국산 육종 품종이 확산되고 있다.

딸기 주산지인 담양의 경우 2005년부터 국산 품종인 '설향'을 재배하기 시작해 2년 만인 지난해 전체 재배면적 340ha 중 100여 ha로 확산됐다.

담양군 봉산면 딸기작목반은 지난해 11월부터 무농약으로 '설향' 딸기를 재배, 유기농 품질인증을 획득하고 '아침마루'라는 브랜드로 서울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 출하하고 있다. 7년간 일본 품종인 '육보'를 재배하다 지난해 9월 중순부터 '설향'딸기로 바꾼 박상오(41·담양군 봉산면)씨는 "로열티 부담을 덜 수 있을 뿐아니라 수확이 많고 품질이 우수, 바이어와 소비자들 반응이 좋은 '설향'으로 바꾸게 됐다"고 말했다.

충남 논산 딸기시험장 김태일 박사팀이 지난 98년 육성을 시작해 2005년 상품화한 '설향'은 병해충에 강하고 수확기가 빠른데다 당도와 향 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종분(45) 전남도 농업기술원 지방농업연구사는 "오는 2010년까지 전체 재배면적의 50%까지 국내 신품종 우량 딸기묘 보급을 늘려 나가겠다"며 "이 경우 연간 16억~30억원의 로열티 경감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2002년 '국제 식물신품종보호협약'(UPOV)에 가입, 지난해 일본과의 딸기 로열티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음에 따라 품종보호제 도입 시기를 2009년으로 연기한바 있다.

/송기동기자 song@

오동도 동백꽃 활짝 피었네

여수 오동도 동백꽃이 최근 붉은 꽃망울을 터뜨리는 등 절정을 이루고 있다. 오동도 동백꽃은 오는 4월 초까지 아리따운 자태를 뽐낼 것으로 전망된다. 오동도 관리사무소는 진입로인 서방파제 인도 768m를 우레탄으로 포장하고 관광홍보 안내원을 배치, 관광객들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남평농협 김병원조합장 '새 농협상' 수상

지역개발 지원금 10억도 받아

김병원(54·사진) 나주 남평농협 조합장이 농협중앙회가 올해 제정한 '새농협상'을 수상한다.

'새농협상'은 새농촌 새농협운동을 통해 완전 자립경영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종합센터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낸 조합장에게 주어지는 상. 전국 1천220개 단위농협 가운데 김조합장과 안동농협 권순협 조합장 등 단 두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시상금으로 개인상금 외에 지역종합센터 역할 증진을 위해 쓰여질 10억원의 자금이 지원되며, 시상식은 오는 3월 중 농협중앙회에서 열린다.

지난 99년부터 남평농협을 이끌어온 김 조합장은 우렁이농법 등 친환경농업을 실천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일궈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김 조합장은 '생명창고인 흙을 살리자'는 기치아래 41ha 에 달하는 객토사업과 토양검정센터 운영을 통해 '왕건이 탐낸 쌀'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했다.

김 조합장은 "이와 함께 지난해 다도농협과 합병에 성공, 상호금융예수금 1천억원을 달성해 자립기반을 공고히했다"고 밝혔다.

전남대를 나온 김 조합장은 현재 농협중앙회 이사, 무·배추전국협의장을 맡고 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영암 스포츠 테마파크 무산 위기

부지 매입비 확보 불투명… 용역비만 날릴 판

영암군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불투명한 사업비 확보로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어 용역비만 날릴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스포츠 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지난 해 3월 용역이 끝났지만 200억 원에 이르는 엄청난 부지 매입비 확보가 어려워 용역비 5천여만 원만 날릴 위기를 맞고 있다.

영암읍 교동리 일대 21만 6천여㎡에 공설운동장과 야구장, 유스호스텔, 국민체육센터, 청소년다목적광장, 골프연습장 등을 시설하겠다는 이 사업은 총 사업비 371억 원 가운데 국비는 고작 10억 원 선이고 지방비 237억 원에 민자 94억 원, 기금 3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군은 최근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미뤄 효과가 미지수인 이 시설에 엄청난 지방비를 쏟아 붓기에는 무리라는 비판론이 제기되면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채 고민에 빠졌다.

이와 함께 지난 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삼호 종합문화체육센터'도 국비 등 50억원의 지원을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예산 확보가 안돼 예정보다 1년 늦은 내년 상반기에나 착공될 것으로 보인다.

삼호읍 용앙리에 다목적체육관 등이 건립될 이 사업 역시 지방비 5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어서 군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

영암군의회 일각에서는 "열악한 지방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규모 스포츠 시설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 추진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영암=김한남기자 hnkim@

마을 물탱크에 불량 기자재

광양·나주시 재시공 '말썽'

전남지역 음용수가 부족한 마을에 설치된 '간이상수도 물탱크' 중 일부가 녹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불량 기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해당 자치단체가 재시공을 하는 등 말썽이 되고 있다.

광양시는 지난 1월 중순부터 한 달여에 걸쳐 옥곡면 3마을과 다압면 3마을 등 6마을에 설치된 간이상수도 물탱크를 재시공했다. 재시공 이유는 광양지역 간이상수도 9곳을 대상으로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스테인리스강판 화학성분 분석 시험'을 의뢰한 결과 이들 6개 마을 물탱크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곳에 설치된 물탱크들은 녹이 쓰는 것을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하는 몰디브덴(MO) 성분이 기준치 이하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나주시도 지난달 같은 업체에서 시공한 2곳의 간이상수도 물탱크의 스테인리스 재질이 설계시방서와 맞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재시공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여수시 역시 같은 민원이 제기되자 9곳의 시료를 채취해 한국화학시험연구소에 화학성분 분석 의뢰를 해둔 상태다. /지방종합

여수해경 경비정 'P-62정'

"20년만에 퇴역 합니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훈상) 소속 30t급 소형 경비정인 P-62정〈사진〉이 지난 20일 마지막 경비임무를 끝으로 퇴역했다.

P-62정은 지난 1987년 9월 부산의 강남조선소에서 건조돼 여수해양경찰서에 배치된 이래 총출동 6만여시간 동안 지구둘레 7바퀴 반에 해당하는 30만6천5백여㎞를 운항하며 임무를 수행해왔다. P-62정은 이 기간 동안 4천400여척의 선박 검문을 통해 670여 척의 위반 선박을 검거했고, 응급환자 수송, 밀입국자 단속 등 전남 동부해역의 해상치안 질서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강진군, 62개 학교에 친환경농산물 급식

강진군이 관내 보육시설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 62개교 6천700여명을 대상으로 '100%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을 추진한다.

강진군은 올해 총 10억여원의 사업비를 확보, 새학기 개학과 동시에 친환경농산물 급식을 실시할 계획이다.

학교급식 식재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쌀의 경우 지난해 연간 103t의 무농약쌀을 공급했으나, 올해부터 인증단계를 상향 조정해 유기인증 쌀을 공급한다.

강진군은 또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재료 공급을 위해 식자재 업체 및 학교급식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과 건강검진, 월 1회 이상의 농약잔류검사, 분기 1회 이상의 급식실태 지도·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호평벼 보급종 16t 농가 공급

국립종자관리소 함평지소(지소장 이명진)가 호평벼 보급종 16t을 농가에 공급한다.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려는 농가는 국립종자관리소 홈페이지(www.seed.go.kr)에서 정부보급종 신청시스템→개별농가 신청시스템→보급종자 신청하기를 클릭해 남은 물량을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된다.

문의 (061)323-0702.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해남군의원 '박희현 군수 충성주' 제조 눈총

쌍고동

○…해남군의원이 군수와 군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속칭 '충성주'를 만들어 눈총.

○…해남군의회 A의원은 지난 20일 군청 옆 식당에서 박희현 군수와 군간부 공무원, 다른 군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만찬회 자리에서 난데없이 맥주컵 2개 사이에 양주잔을 올린 뒤 이마를 탁자에 부딪혀 양주잔을 빠뜨리는 속칭 충성주를 만든 뒤 맥주잔을 들면서 "박희현 군수에게 충성을 맹세한다"고 큰 소리로 소리쳐 주위 사람을 어리둥절케 했다는 것.

○…이 자리를 지켜본 동료 의원들은 "사려깊지 못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지적했으며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주민들도 "술자리지만, 군정을 견제해야 할 군 의원이 군수에게 충성을 맹세했다니 어이가 없다"고 실소.

○…이에 대해 A 의원은 "술자리 분위기를 띄워보려고 했을 뿐"이라고 해명. /해남=박정옥기자 jopark@